

황종우 해수부 장관, 크루즈 관광객 맞이 부산항 준비상황 점검

- 황종우 해수부 장관, 북항크루즈터미널 방문...관광객 이동 동선·주요시설 점검
- 글로벌 선사 관계자와 면담, 부산항 기항 확대 및 관광객 편의 제고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0일(수)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크루즈 관광객 이동동선과 터미널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크루즈 선사 관계자와 부산항 기항 확대 및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대형 크루즈선 기항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장관은 북항크루즈터미널 주차장, 대합실, 부두 등을 차례로 살펴보며 관광객 이동 동선, 대기공간 혼잡도, 보안검색 장비 및 출입국 심사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어 황 장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로열캐리비안의 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호’에 승선하여 선내 보안관리 체계와 탑승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선장 및 선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산항 기항 확대 가능성,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사항과 선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황 장관은 “크루즈 관광은 항만, 물류,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이라며, “부산항을 찾는 관광객이 터미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중심으로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진재영 (051-773-5250)
		담당자	사무관	이종근 (051-773-5277)